



농림축산식품부

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2021년 5월 11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과장 이용직(044-201-2271), 사무관 이귀리(2272) / 제공일 : 5월 10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‘우리 곡물이야기’ 농식품 소비공감 에서 만나세요!

- 농식품부, 농식품 정보 매거진 ‘농식품 소비공감’ 봄호 발간(5.11)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농식품 종합 정보 매거진, ‘농식품 소비공감’

- 쌀, 밀, 콩, 옥수수 등의 우리 곡물을 주제로 독자들에게 농업·농촌의 가치와 다양한 농식품 소비·식생활 정보를 제공

< ‘농식품 소비공감’ 봄호 >

- 농식품 공감/ 농촌 공감/ 소비 공감 3개의 섹션으로 구성
 - (농식품) 우리 곡물의 역사와 문화, ‘감자 보리밥’ 요리법 소개 등
 - (농촌) 농촌 체험 여행 정보*, 농식품 명인(조선된장 장인 조정숙 명인) 소개 등
 - * 양주 맹골마을(전통주, 전통장), 개똥이네 농장(쌀귀리) 등
 - (소비) 봄 제철채소 활용법, 못난이 농산물 소개 등
- 오는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배포처와 웹매거진 형태로 농식품 정보누리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
 - * 농식품 소비공감 애독자에게 제철농산물꾸러미, 농촌사랑모바일상품권 등 다양한 기획행사(이벤트) 참여 기회 제공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쌀, 밀, 콩, 옥수수 등 우리 곡물을 주제로 농식품 종합 정보매거진 '농식품 소비공감' 봄호를 발간했다.
 - '농식품 소비공감'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다양한 농식품 소비·식생활 정보를 제공하여,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.
 - 특히, 올해부터 농업·농촌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기름 잉크와 친환경 용지 등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하였다.
- 올해는 '농업·농촌 공익 가치'에 대한 '공감'을 콘셉트로 기획·제작되었으며, 인문학을 접목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다채로운 농식품 소비·식생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이번 봄호의 각 섹션은 '농식품 소비공감'의 단어들을 조합한 '농식품 공감', '농촌 공감', '소비 공감'으로 구성하였다.
 - '농식품 공감' 섹션은 '밥'에 대한 독자 사연을 시작으로 '우리 곡물'로서 쌀, 밀, 콩, 옥수수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였으며,
 - 쌀에 대한 품종 및 보관법 등의 식생활 정보와 '밤타락 죽', '감자 보리밥' 등 곡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한다.
 - '농촌 공감' 섹션은 매화와 전통주, 전통장으로 유명한 '양주 멥골 마을'과 국산 슈퍼푸드 강진 쌀귀리 전문가인 '개똥이네 농장' 박정웅 대표를 소개하여 농촌 체험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,
 - 스마트팜 우수사례로 철원의 '여에덴목장'과 조선된장 장인 '조정숙 명인'을 만나, 농업·농촌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다.

○ '소비 공감' 섹션에서는 방풍 나물을 비롯한 봄 제철채소의 활용법과 재구매 의사가 높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'못난이 농산물'을 소개하였다.

□ 농식품 소비공감 봄호는 오는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배포처와 웹매거진 형태로 농식품 정보누리에서 온라인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.

○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독자엽서와 후기, 퀴즈 맞추기, 빈칸채우기 등 이벤트를 실시해 제철농산물꾸러미, 농촌사랑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,

○ 특히, 제철 농산물 인증샷을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)에 해시태그(#농식품소비공감 #제철은웁다 #제철농산물)와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제철농산물꾸러미도 주어진다.

* 배포처: 전국 주요 농협은행, 대형 마트 문화센터, 광역지자체 민원실, 중앙·지역 소비자단체, 전국 요리학원 및 산후조리원 등

* 웹매거진 : <http://webzine.foodnuri.go.kr>, 농식품정보누리 : <http://foodnuri.go.kr>

□ 농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“농식품 소비공감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업·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